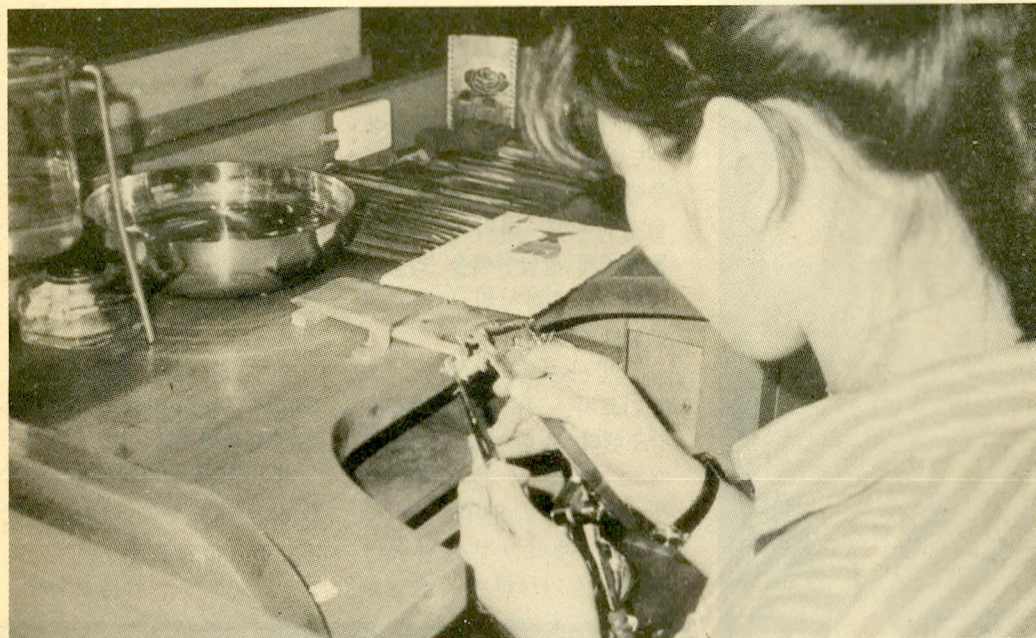


여성 여직업훈련원 개원

여성 전문기능인력 양성 한다

국내 최초 여성 위한 공공직업훈련소 열려



▲안성여자직업훈련원의 귀금속공예과 학생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기능공에 대한 남녀구분 의식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으나 여성기능인력양성 수준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여성직업훈련원의 실용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그간 남성전담 직종으로 알려져 온 중장비 운전직종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됐지만 여성기능인력양성율은 남성의 79.2%에 비해 20.8% 수준인 실정이다.

여성들의 전문노동가치를 높인다는 정부방침 아래 그간 여성기능인력기관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전국 1백9개 기관

에서 2천7백여 여성들이 28개 직종별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능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참여율은 전체 2만5천5백명중 20.8%에 불과한 5천3백여명에 그치고 있어 여성기능양성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 직업훈련소들은 사업내 직업훈련소(87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업전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취업 후의 여성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취업 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업내 직업훈련소 또한

3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

공공직업훈련원(22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녀구분없는 훈련소에 그래도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98명), 중앙(59명), 충북(46명), 정수(39명), 이리(36명), 일산(33명), 구미(19명) 등 주로 공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첫 케이스로 취업전의 여성 인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안성여자직업훈련원(원장 김조영)이 여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5일 개원식을 가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고졸이나 고졸예정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게 되며 직업훈련원을 기술전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아울러 행할 예정이다.

안성의 교육과정을 보면 훈련원생들은 2년제 전문과정으로 정밀측정, 전자, 사무자동화, 귀금속공예, 기계설계, 패션

디자인 등, 섬세함과 침착성을 요하는 부문을 각자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는 기능사1급 및 2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전원 취업지도 및 사후지도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입학한 2백25명의 학생들은 5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을 만큼 전문기술을 습득하려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영자 국장은 "향후에는

여성전용훈련원뿐만 아니라 여성공고도 생겨나야만 한다. 또한 이들이 직업훈련원을 수료한 후 동등한 능력을 입증하는 자격증에 기업체 내에서 남·녀의 구분을 두는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기능인력 전문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순 기자>